

# 0.59%P차 신승...당심 결집 대선 승리 초석 다지기 최우선

민주당 송영길호 과제와 전망

산적한 개혁입법 처리도 숙제

호남 정치 복원·현안 해결 기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수장으로 뽑힌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신임 당대표에게는 4·7재보궐선거 참패로 어수선했던 당을 결집해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맡겨졌다. 또한 산적한 개혁 입법을 무리없이 추진해야 하는 숙제도 안겨졌다.

이번 전당대회가 막판까지 치열한 혼전 양상이었고, 최종 1-2위간 격차도 0.5%P가량에 그쳤다는 점에서 흠어진 당심을 모으는 작업도 험난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전남 정치권에서는 '호남 정치 복원'에 대한 열망과 격정이 교차하고 있으며,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도 기대하고 있다.

2일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송영길 35.6%, 홍영표 35.01%, 우원식 29.38%를 각각 득표하는 혼전 양상으로 막을 내리자 정치권은 '민주당의 단합'을 가장 큰 숙제로 꼽고 있다. 경선 과정에 경쟁이 치열해 일부 후보 간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고, 국회의원들도 후보별로 나뉘어져 세력 다툼을 한 만큼 '당을 하나로 결집하는 과제'가 신임 당대표의 어깨 위에 놓여졌다.

호남 정치권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각 지지후보별로 나뉘졌기 때문에 당을 빠르게 결속하는 과정에서 송 대표의 정치력은 실험 무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송 대표가 평소 특정 계파와 거리를 뒀기 때문에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앞서 송 대표는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특정 대선 후보의 대리인이 당 대표가 되면, 당의 위기가 개선될 수 있다"면서 "20년간 정치활동을 하는 동안 계파 간 갈등에 자유로워, 1999년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영입되었으며, 노무현 후보 수행 실장과 문재인 후보 총괄본부장을 맡는 등 유일하게 정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의원(가운데)과 김영배(왼쪽부터), 백혜련, 전혜숙 최고위원,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김용민, 강병원 최고위원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꽃다발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재창출(노무현)과 정권 교체(문재인)에서 핵심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했다.

당의 화합과 함께 안정적인 대선 경선과 대선 승리도 송 신임 당대표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이와 관련 송 대표는 "내년 대선은 호남 정치 복원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 지난 30년간 복원됐던 호남 정치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호남이 고립되는 구조가 된다"면서 대선 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했다.

송 대표는 "탕평 인사를 통해 통합형 지도부를 구성하고, 국민과 소통을 확대하여 '정권 재창출' 위한 지지를 복원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임대차법, 실수요자 LTV완화, 신규분양 확대, 거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등 대선후보에게 부담되는 과제들을 먼저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호남민심이 승리 원동력...반드시 정권 재창출로 보답하겠다”

송영길 신임 당 대표 인터뷰

곧바로 대선 경선 TF 구성할 것

후보들간 합의 되면 경선 연기 가능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선장에 당선된 송영길 의원은 2일 광주일보와 서면인터뷰에서 "반드시 정권 재창출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송 신임 당 대표는 "경선 기간 동안 전국을 돌면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로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한 호남 민심이 가장 큰 위기를 가진 것을 심감했다"며 "이러한 호남 민심이 저에게 민주당의 전면적인 변화와 혁신을 주문하며 강력한 지지를 보내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송

대표는 이어 "대선까지 남은 311일 동안 저의 모든 판단 기준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이 될 것"이라며 "광주 정신에 부끄럽지 않게 정권재창출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권재창출을 위한 필수 전략에 대해 송 대표는 "곧바로 대선 경선 TF를 구성, 민주당의 경선이 국민적 관심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 "후보들 간에 합의가 되고 당원들의 뜻이 모아진다면 경선 연기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친문 성향인 윤호중 원내대표와의 공조와 관련, "윤 원내대표와는 30년 넘게 함께해 온 친구여서 화합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도 좋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민주당 쇄신책에 대해서 송 대표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을 관료들의 책상이 아닌 민생의 현장에서 찾겠다. 여기에 당내 의사소통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쳐 당내 민주주의를 되살려 내겠다"고 밝혔다.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 등 당심과 민심의 괴리에 대해 송 대표는 "당심과 민심이 완전히 괴리되어 있기 보다는 차이가 있는 정도며, 이는 민주당의 안일함과 오만한 그리고 소통 부족 등이 원인"이라며 "정치는 민심에서 시작해서 끝난다. 민심의 목소리를 잘 듣고 실행에 옮기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선 기간, 당내 비주류로서 불안한 리더십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들이 될 염려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라며 "제 자신을 내세우기 보다 소통하고 행동하는 리더십으로 정권재창출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문대통령 지지율 30% 붕괴...임기말 당청관계 주목

난국 돌파할 뾰족한 묘수 없어

“결국 당이 주도권 쥐고 가게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 이후 30% 선까지 붕괴하면서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3월 대선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권 재창출 모색 차원에서 임기말 당·정·관·학관계의 변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권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최근까지도 40% 선을 넘나드는 '코크리트 지지세'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최근의 '데드크로스'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달 정부 출범 4주년과 백신

공급 진척, 한미정상회담 등이 반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하지만 성년 부동산 민심을 달래고, 코로나19 백신 수급 논란을 돌파할만한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인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2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직무 긍정률)가 30%를 밑돈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 고흥 출신...삼수 끝에 당권 쥔 '86그룹 만형' 외교통 5선 의원

송영길은 누구

김대중 전 대통령 권유로 정계 입문

세 번째 도전 끝에 민주당 당권을 거머쥔 86그룹의 '만형'이자 외교통 5선 의원이다. 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 중에서 당 대표가 배출된 첫 사례다. 그는 경선 기간 동안 "민주라는 이름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호소를 통해 변화를 바라는 당심의 선택을 받았다.

1963년 전남 고흥의 먼 시기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광주 대동고, 연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1984년 초대 직선 총학생회장으로 밝혀 학생운동을 주도했다. 이후 인천 택시회사 등에서 노동운동

을 하다 사법시험에 합격,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2000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로 정계에 입문, 그해 16대 총선 때 37세의 나이로 국회에 입성한 뒤 18대까지 내리 3선을 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당선, 행정가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지만 2014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뒤 여의도로 복귀, 20대~21대 총선에서 연달아 당선됐다. 당권 도전은 세 번째다. 첫 도전이었던 2016년엔 '컷오프'됐지만, 2018년엔 친문 김진표 의원을 누르고 이해찬 전 대표에 이어 2등에 오르는 '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6남매 중 본인을 포함해 형과 여동생 등 4명이 고등고시에 합격해 '고시 4남매' 집안으로도 유명한

다. 행정고시 출신의 송상서 경계대 교수가 큰 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송영년 법무법인 세한 대표변호사가 둘째 형이다. 송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여동생이다. 당내 비주류로 가끔 돌출 발언으로 설화에 휘말리는가 하면 정치적 친화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함께 노동운동을 한 부인 남영신(59)씨와 1남1녀.

▲전남 고흥(58) ▲연세대 경영학과 ▲사시 36회 ▲열린우리당 사무총장 ▲인천광역시시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총괄선대본부장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특사 ▲대통령 직속 초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16·17·18·20·21대 국회의원.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입장

지난 2020년 12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제기한 '차 체험관 철거소송' 상고 심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소송은 선암사의 법적 등기소유권자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권원이 없는 불법 무단 점유자인 태고종 선암사 주지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소유의 토지상에 순천시가 건립한 차 체험관을 철거하라는 내용으로 지난 2011년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소 계기에 대해 2014년 4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피고 순천시가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2015년 6월 광주지방법원 항소부 또한 피고 순천시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피고 순천시와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태고종 선암사는 2015년 6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가 제기된 2015년 6월 이후 대단히 이해적으로 약 5년 6개월 동안 사건을 방치하다가 지난 2020년 12월 24일 선고를 하였습니다.

**선암사는 국가법에 의해 대한불교조계종에 귀속된 전래의 사찰입니다.**

우리나라 전래사찰은 특정 시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조직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공적 자산이기에 오로지 재단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 시기의 사람들이 임의로 그 자산의 성격이나 지위를 변동시킬 수 없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전래의 사찰은 역사적으로 조선시대에도 국가제도로 직접 통할하거나 국가에서 위임한 단체에 의해 관리되어 왔으며, 일제강점기는 물론 현재에도 나라의 공적 자산으로 계승되어 왔습니다. 그러하기에 전래의 사찰은 사찰령이 폐지되고 불교재산관리법으로 대체한 이래 오로지 국가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 심사를 거쳐 등록한 단체에 귀속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며, 선암사는 이러한 국가법(불교재산관리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에 합법적으로 귀속된 것입니다.

국법에 의해 대한불교조계종에 귀속된 선암사만이 진실한 실체이며, 동일한 자산으로 하는 다른 법적 실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적법한 권한행사는 부정하고, 오히려 1970년도에 창종한 태고종이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선암사를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것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권한 없이 선암사를 점유하며 거주하고 있는 태고종 승려들에 의한 착시적 현상에 집착하여 사찰령 및 불교재산관리법의 규정과 의미, 내용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표피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순천시의 '차 체험관 건립공사는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다.**

순천시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경내지에 건립한 차 체험관은 그 과정에서도 불법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르면 전통사찰의 경내지에서 건조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폐지의 경우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산 및 부동산의 대여·양도 또는 담보 제공의 경우에는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2007년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경내지에 '차 체험관'을 건립하면서 등기소유자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통사찰보존법 상의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또한 받지 않았으므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 유일한 종단입니다.**

일제강점기시 일본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사찰주지자격을 비구계 수지 조합을 삭제함으로써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체성을 말살하고 일본 불교화를 본격화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에도 대부분의 전래 사찰들이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신 비구승들을 중심으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한국불교 전통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화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대한불교조계종이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오롯이 계승한 유일무이한 종단임을 정부로부터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1969년 2월 문공부, 재산관리인 해제와 조계종 임명 주지에게 선암사 사무인계, 1969년 10월, 통합종원 유효 대법원 판결, 1972년 8월 문공부, 태고종 선암사는 부존재하고 선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이라는 내용의 확인서 발급 등)

대한불교조계종은 민족의 문화유산인 전래사찰 선암사의 온전한 보존과 계승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태고종이 불법적으로 점유 및 거주하며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운영과 관리를 극렬하게 저항해왔던 상황이 지속되어 왔기에, 재산권자로서 사찰운영과 관리를 불가피하게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1970년 문공부가 선암사의 재산관리인으로 승주군수(현 순천시시장)를 임명한 이후 재산관리인을 해임한 2011년까지 41년 동안 지속적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재산관리인 해임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행사한 이유 또한 대한불교조계종의 권한 행사가 제한적 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산권자로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운영과 관리를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던 것은 선암사 입주로 인한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한불교조계종의 깊은 고심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의 현행판 판결을 기대합니다.**

한국불교가 전래된 지 1,700여년입니다. 1,700여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불교가 현재에 전승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한국불교는 민족 고유의 문화자원이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치러 왔습니다. 한국불교가 이처럼 많은 희생과 인내를 감내하며 오늘에 이르게 된 이유는 불교 이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역대 조사스님들의 가르침과 그 반면에 흐르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러한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이 훼손되지 않고,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지켜왔던 유일한 계승자인 대한불교조계종의 합법적인 지위와 권원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국가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정받았던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정체성을 옹골이 이어 한국불교의 전통성이 상실되지 않고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